

2024-01-15 (2024-03호)

01월 15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박스권 고수한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위안 약세 경계

서울, 1월1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지정학적 위험과 위안 변동성에 주목하면서 단기 박스권 조정 가능성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30원이다.

지난주 글로벌 달러 움직임은 둔화됐지만, 새해 들어 달러는 견고하게 지지되는 한편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부정적인 시각 속 위안은 약세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말 있었던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양안(중국-대만) 관계 경색 우려에 따른 위안 약세 변동성 확대 여부에 당분간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주에는 중국 4분기 GDP를 비롯해 1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가 나오고, 이르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1년 만기 MLF 대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앞섰다.

중국당국의 위안 약세 방어로 위안 약세 변동성이 조절될 여지도 있지만, 장중 위안이 일시적으로 약세 보폭을 확대할 리스크에 더해 위안 약세 기조 강화가 재차 확인될 경우 원화도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겠다.

아울러 중동지역 리스크에 대한 시장 경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공습에 이어 미국의 단독 공격도 단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후티 반군과 관련해 이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동 분쟁 확대 우려에 전주말 유가가 상승 변동성을 키우는 등 당분간 중동 리스크와 이에 따른 유가 반응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주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 결과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연착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2월 소매판매지표가 금주중 발표된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기술적인 주요 저항선이 집중된 1,310원대 중반은 넘어섰지만, 연초 쏟아진 선박주주와 삼성 일가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블록딜 관련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환율은 단기 박스권 상단인 1,320원대를 의미있게 돌파하진 못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 탓에 달러/원을 둘러싼 롱 심리가 다소 편해져버린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환율은 박스권 상단 저항을 다시 테스트해볼 가능성도 열어둬야할 듯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위안 약세 흐름에 대응할 만한 수급 저항이 이번주에도 확인될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中 GDP

중국이 2023년 공식 성장률 목표인 약 5%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는 오는 17일 발표될 연간 GDP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올해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2022년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르면 15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추측 속에 중국 국채 금리는 거의 4년 만의 최저치 부근에 근접했고, 위안화는 한 달 만의 최저치로 절하됐다.

⊙ 다보스포럼

제54차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가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금융업계 종사자들,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 통화 정책의 변화, 부채 수준 증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쟁을 포함한 복잡한 지정학적 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주요 중동 지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주요 행사 중 하나는 17일에 열리는 비공개 금융 서비스 총재 회의로, 은행, 시장, 보험 및 자산 관리 분야의 100명의 회장 및 CEO들이 모일 예정이다.

WEF가 발표한 별도의 서베이에 따르면 리스크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기상이변과 잘못된 정보를 꼽았다.

⊙ 선거 열풍

대만은 13일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대만의 선거를 중국과 대만 간 "평화와 전쟁"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양안 갈등을 의미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60% 이상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 선거를 실시하는데 이번 대만 총통 선거가 그 시작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도 올해 선거를 치르는 20여 개 국가들 중 일부다.

투자자들은 올해 뻣뻣한 선거 일정이 금융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美 소매판매

이번 주 투자자들은 미국의 소매판매 데이터와 은행 실적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건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는 17일 발표될 12월 소매판매 지표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며,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월비 0.4%로 11월의 0.3%보다 약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골드만삭스와 찰스슈왑 등이 금주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 英 물가지표

금주 발표될 영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달보다 둔화됐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CPI 상승률이 전년비 3.8%로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였던 11월의 3.9%보다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파운드화는 영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오는 17일 CPI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 파운드와 강세론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15일(일)

- ⊙ 특이 일정 없음

1월16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공개 (2023년 제24차, 12.28일, 비통방) (16:00)

1월17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2023년 1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1월18일(목)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2024-2호) (12:00)
- ⊙ 기획재정부: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월19일(금)

- ⊙ 특이 일정 없음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1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월10-17일		중국	FDI (YTD)	12월		-10.00%
1월15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1월	-0.3%	-0.7%
1월16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MM	12월	0.0%	0.2%
1월17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월	-5.00	-14.50
1월17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1월		12
1월17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2월		-0.2%
1월17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12월		2.9%
1월17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2월		6.6%
1월17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2월		10.1%
1월17일	11:00	중국	GDP YY	4분기		4.9%
1월17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12월	0.2%	-0.6%
1월17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월12일 주간		190.6
1월17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2월	-0.5%	-0.4%
1월17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2월	-0.6%	-0.9%
1월17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2월	0.4%	0.3%
1월17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2월	0.0%	0.2%
1월18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월	39	37
1월18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11월	-0.8%	0.7%
1월18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11월		30.05B
1월18일	22:30	미국	건축허가건수	12월	1.475M	1.467M
1월18일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12월	1.439M	1.560M
1월18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장 청구건수	1월8일 주간	207k	202k
1월19일	08:30	일본	CPI MM NSA	12월		-0.2%
1월20-25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월		-15.0
1월20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2월	3.82M	3.82M
1월20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1월	69.6	69.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15일 (월)

-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19일까지)
- ⊙ 휴장국가: 미국

1월16일 (화)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17일 오전 1시)

1월17일 (수)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금융서비스부문 사이버리스크 관련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1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 상공회의소 행사 토론 참석 (오후 11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 (18일 오전 1시15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은 주최 행사 개최사 (18일 오전 5시)

1월18일 (목)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메트로 애틀랜타 회의소 이사회서 연설 (오후 9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 파스칼 도노후 유로그룹 의장 · 크리스티안 제빙 도이치은행 CEO,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서 연설 (19일 오전 1시1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 2024 경제전망 행사에서 연설 (19일 오전 2시5분)

1월19일 (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 (오후 7시)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NFHA 주최 심포지엄 은행 규제 관련 토론 참석 (20일 오전 3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샌디에고 지역 경제 행사 토론 참석 (20일 오전 6시15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종합)-HSBC 싱가포르-하나은행, 달러/원 FX스왑 체결... RFI 첫 스왑 거래

서울, 1월12일 (로이터) -

올해부터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거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HSBC 싱가포르지점이 국내은행과 처음으로 달러/원 FX스왑거래를 체결했다.

HSBC와 하나은행에 따르면 12일 개장 직후 HSBC싱가포르지점과 하나은행은 5천만달러 규모의 1개월 물 달러/원 FX스왑거래를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체결했다.

볼칸 베니하심 HSBC 외환 캐쉬 및 신흥시장 이자율 글로벌 총괄은 이와 관련해 "HSBC는 한국의 외환 시장 개방을 환영하며, 해외 인가 금융기관 제도를 통해 이번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 시간 연장, RFI, 제3자 FX 제도 등 외환 시장 선진화 제도를 통해 한국의 외환 시장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고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올해 상반기동안 외환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후 7월부터 정식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예나·김주연·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中, 지방정부 역외 자금조달 허점 보완 - 소식통들

상하이, 1월9일 (로이터) -

중국 규제당국이 지난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GFV)들이 차입을 더 늘릴 수 있게 했던 규제상의 허점을 메웠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소식통들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LGFV에 364일 만기 역외채권 발행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들의 부채는 약 9조달러로 급증하여 둔화하는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은 LGFV의 신규 채권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지침은 많은 LGFV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해외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364일 만기 역외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새로운 국경 간 자금 조달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미상환 부채를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 차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LGFV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FV의 채권 발행에 정통한 한 증권사 소식통은 "364일 만기 역외 LGFV 채권 발행이 중단됐다"면서 "이러한 채권은 규제를 받지 않았고 정부의 부채 해결 노력의 방향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中 국영은행들, 역내외서 위안 하락 막기 위해 활발히 움직여 - 소식통들

상하이/베이징, 1월8일 (로이터) -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들이 지난주에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역내외 외환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였다고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소식통 중 두 명은 국영은행들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해 역내 스왑 시장에서 위안화를 미국 달러로 바꾼 후 현물 시장에서 빠르게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두 소식통은 지난 금요일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유지하기 위해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대출을 축소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시장 거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대만 선거, 미국의 대중국 관계 안정 시험대 될 것

워싱턴, 1월9일 (로이터) -

이번 주 대만의 선거는 누가 승리하든 미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며, 여당의 승리는 중국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고 야당의 승리는 대만의 국방 정책에 대한 여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는 13일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있어 올해 첫 번째 와일드카드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의 선거를 중국과 대만 간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갈등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주권 주장을 거부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대만의 민주적 절차를 조종하거나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

지난달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우리의 강한 기대와 희망은 이러한 선거가 협박이나 강압 또는 모든 측면의 간섭이 없는 선거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번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한 고위 관리는 2012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진당 후보였던 차이잉원 현 총통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차이잉원은 그해 총통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2020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필요하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공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임기 제한으로 인해 차이 총통은 다시 출마할 수 없지만, 중국은 올해 민진당 후보이자 현 대만 부총통인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로 낙인찍었으며, 분석가들은 그가 승리할 경우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진당과 대만 최대 야당인 국민당 모두 자신들만이 대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대만의 국방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 국민당은 독립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두 정당 모두 대만의 2300만 국민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국민당 후보인 허우유위가 승리할 경우 대만의 군사적 역지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지만 친중 성향은 부인하고 있다.

더글러스 팔 전 대만 주재 미국 비공식 대사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입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불확실한 국민당보다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민진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팔은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의 역량이 확장되고, 미국 내에서도 미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누가 당선되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외교, 명확한 소통 채널,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는 긴장 고조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은 대만의 국방 문제를 대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으며, 대만으로 하여금 비용상 효율적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파괴하기 어려운 군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분석가들은 대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는 강력하지만,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는 부유한 대만이 자체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약속을 중단하거나 번복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대만의 새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분열되어 대만의 국방 정책이 마비된다면 워싱턴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민당이 민진당만큼 국방 개혁과 지출에 전념할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국민당이 승리하면 중국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말하는 양안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카리스 템플먼은 국민당의 국방 협력 공약에 대한 의문은 타당하지만 어떤 후보가 미국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템플먼은 "국민당이 집권하면 양안 관계를 안정시키고 단기적인 위협 수준을 낮추며 대만의 국방 개혁을 이행할 시간을 벌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당국, 달러/원 시장 선도은행 7개로 확대... 국민은행 신규 편입

서울, 1월8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 달러/원 시장 선도은행으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해 발표했다.

외환당국이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한 기관은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으로 총 7개 외국환은행이다.

당국은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시행을 염두에 두며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도은행 수를 작년에 비해 1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도은행으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이다.

선도은행으로 선정되면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올해 시장 선도은행 선정시 당초 현물환시장의 양방향 거래실적뿐 아니라 현물환시장 호가조성 노력과 FX스왑거래 실적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도은행 평가에 있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양방향 현물환 거래실적을 반영했지만, 7월부터 11월까지는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가중치 15%),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외환스왑 거래(40%)를 반영했다.

한편, 개편한 선정기준에 있어 당국은 각 항목의 거래실적에서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유동성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거래는 제외했다.

당국은 2025년 선도은행 선정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서울시간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